

대중문화의 세대혁명

강 현
음악평론가

60년대 중반, 한국모던포크음악의 담당자들이 학생 아마추어 가수의 신분으로 시내 음악감상실의 무대를 전전하다가 최초로 방송가와 주류음악질서로 진입하는 것은 1968년도였다. 대중음악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당시 이들의 인식 수준은 기존의 주류음악인 트로트와 스탠다드팝계열의 음악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이들은 모두 대학생의 신분이었다는 점과 따라서 아마추어리즘의 입장에서 음악을 대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실제로 71년까지의 한국모던포크의 앨범들이 엄청난 숫자의 외국 팝을 번안해서 수록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일단 초반의 한국모던포크는 서구의 대중음악을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0년, 71년의 2년간 한국포크음반에 실린 번안곡의 숫자는 그 어떤 다른 장르의 음악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1970년이면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각종 포크페스티벌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막연하게나마 '포크송'과 '포크송 운동'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포크음악계에서는 창작곡에 대한 요구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¹⁾ 그리고 동시에 번안되어 나오는 외국팝의 텍스트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V장과 VI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72년 이후 우리 포크음악은 본격적인 싱어송라이터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이들이 대학생, 즉 사회의 최상층 엘리트였다는 사실과 아마추어 뮤지션 출신이라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텍스트에는 지금까지의 한국대중음악의 텍스트들과는 다른 신선한 그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다. 독재적인 정권의 서슬 퍼런 감시 하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농밀해진 자아 탐험, 우리 고유의 음악 문화에 대한 탐구, 감정의 과잉을 걸어 낸 지적이고 담백한 표현 등이 그것이며 이들은 지금까지의 한국대중음악의 성격을 규정 짓고 있던 식민성, 이식성의 사슬을 서서히 끊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70년대 한국모던포크음악은 한국대중음악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1. 한국 최초의 세대 혁명 - 청년문화와 포크음악

1960년대말과 1970년대 한국의 청년문화와 포크음악이 걸어온 발걸음은 가히 불가사의하기까지 하다. 어떤 문화사적인, 예술사적인 축적도 거의 없이 단지 미국등 서구의 대중음악을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듯싶더니, 일순 엄청난 창작적 폭발력을 보여준 70년대 통기타로 상징되는 한국포크음악의 출현은 한국의 문화사적 흐름에 있어서 분명 '혁명'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대중음악사에서 포크음악이 가지는 중요성은 워니워니해도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성인세대와 구분되는 청년문화가 탄생하게 된 정일 것이며, 1970년대 이후 청(소)년문화, 혹은 세대문화로서의 속성을 강하게 지니게 되는 한국 대중음악문화의 성격과 정체성 규명에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70년대 청년문화는 한국에서의 최초의 세대혁명인 것이며 그 청년문화를 주도한 포크음악은 그 자체로 미국의 1950년대 로큰롤 혁명에 상응하는 포크혁명, 통기타혁명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통기타 혁명은 세대혁명으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이전까지 늘 체제순응적이던 대중음악의 기

1) 일간스포츠 11월 19일자 <팝스위에 새물결>

류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그 변화를 단지 대중음악계의 일시적인 이단적 현상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이후 한국대중음악사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사적인 한 흐름(세밀한 자아성찰과 음악양식적인 측면에서의 형식주의의 타파, 나아가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등)으로 담보해냈다는 점에서 이후 한국대중음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것이다.

2. 1970년대 대학가 청년문화 주도층의 성향과 특징

(1) 전후세대의 출현과 문화적, 미적 전범의 교체(일본에서 미국으로)

1970년대 청년문화를 주도한 계층은 해방이후 출생자들이고 따라서 일제시대의 경험이 없으며 또한 한글세대이다. 이들은 일본문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대신 서구문화의 강한 영향 속에서 자란 세대이기도 하다.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생활각각과 가치체계, 미적취향을 지니게 된 세대로의 교체가 격렬한 문화적 갈등을 수반하며 드러난 현상이 청년문화의 탄생인 것이며 대중음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기성세대가 향유하는 노래(특히 트로트)에 체질적으로 거부감을 가졌으리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물론 70년대 청년문화 탄생의 배경에는 미국식 생활방식과 외형적 생활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큰 비중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이 받아들인 미국 대중문화가 G.I.문화(50년대)나 백인 주류 대중음악(60년대의 스탠다드팝)이 아닌 60년대 미국의 비판적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포크였다는 사실이 이후 이들이 한국 최초로 주류의 음악을 전복하고 세대혁명이라고까지 밀어부칠 수 있는 저력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

이들은 10대의 나이에 '4.19'와, '6.3 한.일 수교회담 반대 시위(1964)'를 경험한 세대로서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동시에 체험한 최초의 세대인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후에 이들의 의식 및 음악적 내용과 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 땅에서 청년문화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던 1970년도부터 75년까지의 6년간 일어난 중요한 정치, 사회적 사건들을 연표로 요약했다. 청년문화를 주도한 세력들은 이러한 정치, 사회환경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3) 한국 최초의 상업민방 및 TV세대

1954년 12월 한국 최초의 민방인 기독교방송(CBS)이 개국한 이래 1961년 12월에는 한국문화방송(MBC), 1963년 4월에는 동아방송(DBS), 1964년 5월에는 동양방송(TBC) 등이 개국하게 된다. 마침 불어닥친 서구대중음악 청취 열기와 맞물리면서 이들 민간 라디오 방송들에 스타 DJ들이 출현하여 미국의 팝음악을 많이 방송하게 된다. 미국의 60년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60년대는 서구 대중문화에 있어서 유토피아와도 같은 시대였던 것이다. 특히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영광의 60년대였으며 음악계 전체로 보면 대중음악이 소위 '클래식'을 몰아내고 완전히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대중음악은 놀라운 만큼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냈으며 드디어 대중음악계에 본격적으로 Artist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대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미국의 포크나 록을 들으면서 성장한 세대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1961년 12월 31일에는 KBS-TV가 개국했으며, 1964년 12월에는 TBC-TV, 1969년 8월에는 MBC-TV가 개국함으로써 이들 세대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지각 혁명의 세례를 받은 세대이기도 했던 것이다.

구 년	정치, 경제, 사회환경	학원가의 시위 등
1970 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67-71)	11.13 전태일 분신 사건
	04.22. 새마을 운동 시작	
	07.07 경부고속도로 개통	
	08.15 수경사군인 조선일보기자 구타 및 구속사건	
1971 년	04.27 제7대 대통령 선거	04월~10월 대학생들 교련철폐투쟁
	10.05 수경사소속군인 고려대 난입	04.15 언론자유수호선언 발표
	10.15 서울 일원에 위수령 발동 -서울 시내 8개대학에 위수군인 진주 -1889명 연행, 119명 구속, -23개대학 117명 제적 및 입영조치	08.23 서울대학교수들 대학자주화선언
	12.06 국가비상사태 선포	
	12.27 국가보위에관한 특별조치법통과	
1972 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72~76)	
	07.04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08.02 '경제안정과 성장에관한 긴급 명령 제15호(8.3조치)' 기습발표	
	10.17 비상계엄령선포 및 포고1호발표	
	12.27 유신헌법공포/박정희 8대 대통령	
1973 년	08.08 김대중 납치사건	10.02 서울대 문리대생들 유신이후 최초 공개시위
	10.06 제4차 중동전쟁 발발	
	10.17 제1차 석유파동 시작	
1974 년	01.08. 긴급조치 1호 발동	03.21. 경북대생 '반독재민주구국 선언' 발표
	04.03. 민청학련사건/긴급조치4호발동	10.24 동아일보사 자유언론실천대회
	12.23 동아방송 및 동아일보사 탄압	
1975 년	04.08 긴급조치7호 발동, 고려대에 휴업령 선포	
	05.13 긴급조치 9호 발동	

(4)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진 세대

-서구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민족주의문화에 대해 관심을 보인 세대

이들은 서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을 가진 세대이며 또한 본격적으로 서구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서구적 패션과 당시로서는 특수계층의 술인 맥주, TIME지 등으로 대표되는 '겉 멋'에 의해 기성세대와 자신들을 차별화한 세대인 것이다.

한편, 이들은 민족주의 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았던 세대이다. 70~80년대 운동권 배출의 창구가 되었던 탈춤부흥운동을 시작한 세대이며, 개량한복, 마당극운동 등을 통한 우리 민요에 대한 관심의 증대(서유석, 양병집 등에게 영향을 미침), 우리말 바로쓰기 운동 등을 주도한 세대인 것이다. 즉, 이 시기는 '서구를 향한 원심력'과, '우리 것에 대한 구심력'이 동거한 세대인 것이며 대중음악에 있어서 그

매개체는 바로 '통기타'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학가의 청년 문화는 각 대학별로 '지역구 스타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서울대의 김민기, 양병집, 한돌, 연세대(신촌)의 이장희, 서강대의 양희은, 성대의 서유석 등이 그들이며 이러한 전무후무한 현상 속에서 이들은 이후 '통기타 혁명'을 주도해가게 되는 것이다.

3. 70년대 한국포크음악의 미학적 특징

(1) 아마추어리즘 혹은 딜레땅띠즘

예술사에서 딜레땅띠즘의 가치에 대한 논의만큼 자주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도 흔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문학 분야에서 기존의 형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실험적 시도와 성과물들은 종종 딜레땅띠즘으로부터 나왔음을 예술사는 증명하고 있다. 70년대 포크음악은 한국대중음악사에 있어서 딜레땅띠즘이 발현된 최초의 경우가 될 것이다. 비주류음악으로 출발한 포크음악이 세대적 변별성을 지니면서 순식간에 주류음악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딜레땅띠즘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통기타혁명'을 주도한 이들은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음악을 했으며 처음부터 음악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이들은 흔치 않았다. 그들은 음악을 그저 취미나 멋으로 또는 예술적 자기발현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딜레땅띠즘이 지닌 긍정적인 힘의 근원은 바로 '자유로움'에 있다. 상대적으로 어떠한 의무감이나 현실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의식은 기존의 엄격한 형식들을 쉽게 무시할 수 있게 만들며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예술사에 한 획을 긋는 창작물들을 종종 만나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땅띠즘은 대개의 경우 조악한 작품들을 낳기 쉬우며 또한 새롭게 도전한 실험적 시도들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그러한 시도들이 연연한 흐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프로로서의 의식과 자세 또한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애초부터 프로를 지향하지 않았다는 점은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약하게 만들었으며 사회 비판적인 동기 역시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유신정권의 탄압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릎을 꿇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2) 개인주의적, 자연주의적인 묘사와 가치관

1960년대까지 우리 대중음악의 양대산맥을 이루던 트로트와 스탠다드팝은 그 담당주체의 성향과 사회적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생산체계라는 측면에서도 엄격한 형식주의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일제시대와 60년대부터 시작된 근대화 드라이브 정책 하의 경직된 사회구조 속에서 음반 산업 자본의 철저한 지배를 받고 있던 음악가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발현한다든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자연주의적인 시각을 작품에 담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음악이 빅밴드를 사용한 편곡이었던 바 이는 형식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70년대 학생 출신의 통기타음악 담당자들은 경직된 사회구조와 음반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신분이었으며 또한 음악적 특성상 소편성의 편곡을 하게 됨으로써 음악의 내용적 측면과 양식적 측면에서 공히 자신의 개성과 특징을 심분 발휘할 수 있었고 또한 많은 제약이 있기는 했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자연주의적인 예술관에 점차 눈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음악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확인

포크음악은 '공동체성'-특히 민중들의 자발적인 공동체정신을 그 내재율로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전통포크가 그러했고 또 우리의 전통포크가 그러했다. 그래서 미국의 모던포크도 30년대 미국의 노동운동과 정치운동, 60년대의 인권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쉽게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포크음악은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을 또 그 내재율로 하는 음악이다. 포크는 기본적으로 민중들의 음악이었으며 역사 속에서 민중들은 지배계급에 의한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다. 이렇게 'Folk Music'은 그 DNA 안에 '공동체성'과 '저항성'을 담보하고 있는 음악인 것이다. 따라서 '앤지 포크음악은 스타 시스템 등 음악산업자본의 논리, 상업적 논리와는 궁합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한 포크음악은 그 양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특성도 지니고 있다. 악기의 기동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통기타 한 대의 반주로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포크음악의 특징인 것이다. 노래를 함께 부르는 행위는 그들이 동일한 사회적, 세대적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70년대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함께 노래한다는 행위가 주는 의미와 힘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포크음악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80년대를 거치면서 그 사회적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70년대, 경직된 정치 사회 체제 하에서 급격한 서구화와 공업화를 겪고 있던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포크음악이 청년문화와 조우하게 된 것이다. 포크음악, 소위 '통기타음악'은 이러한 청년문화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4. 세계 최초의 세대혁명인 1950년대 미국의 r'n'r revolution과의 비교

(1) Rock'en Roll Revolution - 인류역사상 최초의 세대혁명

대중음악은 세대의 문화적 정서를 대표하며 세대간의 갈등과 투쟁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음악이다. 그런데 대중음악에 있어서 이 '세대(generation)'라는 개념은 대중음악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대두되는 개념은 아니었다. 봉건 시대에는 계급에 의해서 문화가 나뉘어졌으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도 문화라 하면 모두 어른들의 문화를 지칭하는 것이었지 아이들의 문화, 젊은 세대의 문화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 인류의 문화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Rock'en Roll Revolution, 즉 세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초반의 미국의 상황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미국은 1914년 1차대전 중에 열강의 틈바구니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지만 1929년 대공황으로 그나마 쌓아왔던 부를 모두 잃어버린다. 루즈벨트의 뉴딜정책 등에 힘입어 약 6년간에 걸쳐 공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순간 2차대전이 발발했으며, 이것이 미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연합국의 일부로 승전도 거두었지만 전쟁의 와중에도 본토가 안전하게 보존되었으며 따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서구 열강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1950년대에 미국은 황금기(Golden Age)를 구가하게 된다.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195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생긴 개념이다.

1950년대 초반 미국의 특징은 한 마디로 '모든 것은 아이들을 위해(do it for kids)'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1950년대 미국사회를 '필리아키(filiarchy)'가 지배하는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욕구가 발산되는 시대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집착하는 부모들이 먼저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챙겨주는 시대'라는 뜻이다.²⁾

인구학적 의미에서 흔히 '베이비 붐 세대'라고 불리는 1950년대는 사상 처음으로 어린이들이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 당시에 시행했던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 쾌적한 환경의 교외로 옮겨가던 부모세대들은 자식과 가족의 행복을 최우선시했을 뿐 아니라 모든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묘사하는 드라마가 열광적인 인기를 끌었고 성경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한 것만 봐도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찰스 패노티, '문화와 유행상품의 역사 2', 자작나무, 1997, p.247

경제적으로도 축복받은 시대였다. 1950년대에 미국인들은 만개한 소비문화를 경험했는데 웬만한 미국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보통사람들의 소비니즘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또한 무조건적인 '사자' 열풍이 너무 심한 나머지 물질적 부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조도 나타났다. 결국 한 번 유행을 타면 순식간에 전국을 휩쓰는 집단주의적인 양상이 벌어졌으며 1950년대는 진정한 의미에서 '대중적인 인기 아이템'이 등장하는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노먼 메일러는 훗날 1950년대를 '역사상 최악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모든 사회적인 죄악과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에 눈감았던 시대였다는 것이다. 1950년대 사람들은 실제로 순응과 획일화의 경향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전혀 비슷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비트족(beatniks)'이었다. 이들은 역시 비트족인 유대인 출신의 시인이며 동성 연애자인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 등 기성체도와 맞서는 시인의 시를 읽고 어딘지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는 동양 철학에 탐닉했으며 제임스 딘이나 말론 브란도 같은 반항적인 이미지의 배우들을 숭배했다. 또한 속세의 성공을 중요시하는 '인습적인 사람들' 경멸했는데 기성세대들은 '청소년 비행'의 차원에서 이들을 이해했다. 1950년대의 기성문화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타락한' 음악 흑큰롤을 즐기는 '비트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거센 도전을 받게 된다.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느끼는 순간 자신들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집안에서부터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아이들, 자식들이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었다. 미국의 백인 중산층 가정에 10대 낙오자들(drop-out)이 생기기 시작한다. 미국사회에서 10대들을 억압하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은 가족, 학교, 교회 등이었다. 즉, 가족으로부터의 억압, 학교로부터의 억압, 교회로부터의 억압에 견디다 못한 10대 낙오자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로부터의 억압, 즉 성적 억압은 다분히 미국적인 특성이었다. 10대들이 폭발하는데 그 기폭제가 된 것은 흑인 거주 지역에서 흑인 청소년들이 즐겨 듣고 있던 rhythm & blues였다. R&B는 소위 하위문화(sub-culture), 흑인의 비공식적인 음악문화, 제도화될 수 없었던 음악문화였는데 백인 10대 낙오자들이 이 하위문화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이제 부모와 10대들간의 갈등이 사회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R&B는 분당 비트수 160 이상의 격렬하고 빠른 음악이다. 마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격렬한 빠르기가 R&B의 리듬적인 특징이다.

또한 R&B는 Blues 창법의 특징인 본능적인 창법을 그대로 계승했다. 프랭크 시나트라, 패티 페이지 등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백인의 발성은 음정 하나하나와 가사의 음절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발성이며 백인들은 이러한 발성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발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흑인의 외치는 듯한 shouting 창법이나 흐느끼는 듯한 screaming의 창법과 발성은 본능적인 발성이며 백인들은 이러한 본능적인 보컬을 위험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백인들이 R&B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결정타는 그 노랫말이었다. 무식한 흑인들은 가사에 속어나 슬랭을 마구 집어넣었으며 이것은 백인 청교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2차대전에는 미국의 많은 흑인들도 참전하였다. 그들의 피의 대가(월급이나 전정보상금등)로 흑인들 고유의 음반 레이블(물론 인디레이블)이 생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결국 흑인들을 위한 흑인들 고유의 음반시장이 생기게 되었다. 빌보드지에서 이러한 새로운 흑인음악에 대한 차트를 신설하면서 최초로 R&B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초기 R&B 뮤지션으로는 Big Mama Thornton이라는 여가수가 있다. 대중적으로 그리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엘비스 프레슬리가 1956년에 발표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Hound Dog>을 이미 1951년도에 취입했으며, 제니스 조플린의 히트곡 <Ball and Chain>도 그녀가 이미 불렀던 곡이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흑인만의 soul과 swing이 강하게 느껴진다. soul과 swing은 흑인음악을 이해하는 키워드이며 절대로 합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악보화할 수도 없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흑인 R&B 뮤지션으로는 Fats Domino와 Little Richard를 들 수 있겠다. 뉴올리언즈 출신의 Fats Domino는 위협적이지 않은 달콤한 R&B를 불렀고, 조지아주 출신의 Little Richard는 과격하고 격렬한 노래를 부르는 R&B 뮤지션이었다. 그의 히트곡은 <Long Tall Sally(1955)>와 엘비스가 크게 히트시킨 <Tutti Frutti> 등이 있다. Little Richard는 록큰롤의 토대와 기초를 닦음과 동시에 완성시킨 위대한 흑인 음악가로써 리틀 리처드에 이르러 비로소 록큰롤은 영원한 젊음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게 음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며 shouting과 screaming 등으로 대변되는 폭발성의 에너지 또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흑인음악인 R&B에 백인 10대 낙오자들이 경도되어 가는지를 보자.

R&B는 1950년대 중반에 그 명칭이 Rock'en Roll로 바뀐다. 이 용어는 1954년 뉴욕의 DJ 알란 프리드(Alan Freed)가 라디오방송을 진행하던 중에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한다. 사실 당시 흑인 R&B 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던 단어 중에는 rock, roll, shake, rattle 등 4개의 동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rock은 '흔들다, 진동하다, 부딪히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이고 roll은 '구르다, 달리다, 울리다, 푹푹 뭉쳐 감싸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인데 흑인 속어로는 성교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1955년 미국에서는 저예산 영화 'Blackboard Jungle'이 공전의 히트를 친다. 이 영화가 미국 10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영화의 주제가 바로 <Rock Around The Clock>이라는 노래였으며 빌보드차트 1위를 점령하게 된다. 이 노래는 'Bill Haley & Comets'라는 무명 백인 컨츄리밴드가 불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6년 2월에 엘비스가 부른 <Heartbreak Hotel>이 정상에 오르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엘비스는 1956년 한 해 동안만 무려 19곡의 노래를 발표했으며 Number 1. 싱글이 3곡이나 되었던 것이다.³⁾

록큰롤은 기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불순한 음악으로 인식되었으며 1956년 가을 이후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회, 정치, 경제적 무능력자인 10대 젊은이들과 기득권을 쥔 기성세대들간의 대립이 그것이다. 백인 기성세대들은 록큰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악마주의'를 들고 나왔다. 즉, 록큰롤은 '악마의 음악'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 제리 리 루이스(Jerry Lee Lewis) 사건이 터진다. 그는 엘비스와 같은 해 데뷔했는데 10대인 조카를 강간하고 결혼하는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제리 리 루이스를 패륜아라고 맹렬히 비난했으며 기자들도 록큰롤은 패륜아의 음악이라고 몰아세웠다. 척 베리(Chuck Berry)는 자신이 몰던 승용차 조수석에 미성년자인 팬을 태우고 실수로 주경계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미국 하원은 미국 전역의 600여개 방송국들 중 300여개의 방송국 PD들을 워싱턴으로 소환해서 국회청문회를 열고 이들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한다. 그 유명한 Payola 스캔들이 바로 이것이다.

'Pay'와 'Pianola'의 합성어인 페이올라는 '방송 청탁을 위한 돈'을 뜻하는 말로서, 레코드 회사가 돈을 '지불(pay)'하면 DJ는 '자동 피아노(pianola)'처럼 특정 레코드를 반복 방송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페이올라는 이미 보드빌 시대에서부터 존재해 온 미국 대중 음악 산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이었으며, 의회가 그것을 문제 삼기 전까지만 해도 언론이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업계 내부의 일이었다. 페이올라 스캔들은 59-60년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페이올라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기 시작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가장 유명한 DJ였던 앨런 프리드와 '아메리칸 밴드 스탠드'의 진행자였던 딕 클라크가 희생양의 명예를 짊어졌고, 60년 9월 13일 연방 통신 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미국 의회가 페이올라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우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페이올라의 수수는 실정법 위반 행위가 아니었다. 실질적인 면에서 페이올라는 필요악이었다. 음반회사는 그것을 보다 많은 앨범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마케팅 비용으로 당연시했고, DJ와 방송국의 입장에서 그것은 방송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재정적 동기를 부여받았다. 페이올라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피해

3) 이렇게 1955년에 Bill Haley와 Elvis Presley에 의해 대중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록큰롤은 이미 10여년전부터 흑인 거주지역에서 유행하던 R&B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롤링 스톤'지는 록큰롤의 효시를 1951년 재키 브렌스턴(Jackie Brenston)의 <Rocket 88>로 밝히고 있다.

를 주는 일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페이올라 스캔들은 윤리성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양대 저작권 기구인 ASCAP과 BMI간의 알력 싸움이었으며, 인종차별적 동기와 로큰롤에 대한 편견 등이 교묘하게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다.⁴⁾

1958년도에 입대한 엘비스, 종교에 귀의해서 록큰롤을 떠난 리틀 리처드(Little Richard), 사생활 문제로 음악계에서 퇴출 당해야 했던 제리 리 루이스와 척 베리에 이어, 1959년도에는 엘비스 이후 등장했던 록큰롤의 대표적 스타인 버디 홀리(Buddy Holly)와 <La Bamba>의 주인공 리치 발렌스(Ritchie Valens)가 비행기 추락사 했으며 1960년에는 <Be Bop a Lula >의 진 빈센트(Gene Vincent)와 <Summertime Blues>의 에디 코크런(Eddie Cochran)이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에디가 사망하게 된다.

록큰롤은 이제 거의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5년 후, 1964년 2월, 'Beatles'가 '설리반 쇼'에 출연하면서 록큰롤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1964년 4월 빌보드차트에서는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비틀즈의 곡으로 채워지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수립되었으며, 196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팔린 전체 앨범의 58%가 비틀즈의 음반이라는 대기록도 수립된다.

1964년 이후 록큰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며, 역시 1964년 이후 대중음악에서 '세대'라는 개념은 확고히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2) Rock'en Roll Revolution의 주 포인트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인류역사상 최초의 세대혁명(Generation Revolution)이었다는 것이 록큰롤 레볼루션의 첫 번째 포인트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록큰롤이 Sex의 성역을 깨트렸다는 것이다. 즉 청교도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미국의 백인 중산층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금기사항을 깨트렸다는 사실이다. 록큰롤 레볼루션의 화두는 sex였으며 록큰롤음악은 미국인들이 언급을 회피하며 금기시하던 Sex를 주 소재로 삼았던 것이다.

세 번째 포인트는 록큰롤 레볼루션으로 인하여 대중음악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경향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메이저레이블의 음반회사들로부터 대중음악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싱어송라이터가 등장하면서 인디레이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전까지의 대중음악담당자라 할 수 있는 작곡가, 작사가, 싱어 등은 모두 공장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하의 노동자와 같은 신세였다. 음악이 크게 히트해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으며 그 혜택은 모두 대규모 음반회사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이전까지의 대중음악담당자는 권력과 물질과 자본에 순응할 수 밖에 없었던 엔터테이너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대중음악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경향과 함께 그들 스스로에게 예술인이라는, artist라는 자각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대중음악계에서 artist라는 단어는 상당히 독특하고 독자적인 사회적 조건을 가진 존재라는 특이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작사, 작곡가와 싱어는 전혀 다른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작사, 작곡, 노래를 모두 담당하며 자기 음악에 대한 자기의 주권과 재산권을 행사하는 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예를 들어 Beatles라는 밴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singer song writer band인 것이다. 이렇게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에 불을 당긴 것이 바로 록큰롤이며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는 이를 'Revolution'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4) Anthony DeCurtis, 'Illustrated History of Rock & Roll', Rolling Stone, pp.121-123

(3) 70년대 한국 통기타혁명과 50년대 미국의 r'n'r revolution

70년대 통기타혁명은 문화사적으로 볼 때 한국최초의 세대혁명이라는 점에서 50년대 미국의 로큰롤 레볼루션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럼 약 15년에서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두 지역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화적 반역현상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50년대 미국의 로큰롤 레볼루션과 70년대 한국의 통기타혁명은 최초의 세대혁명이라는 사회사적 의의에서부터 Payola Scandal과 대마초 파동 등 기성의 정치 사회 권력의 탄압으로 인해 인위적 단절을 겪어야 했던 그 운명까지도 이렇게 닮아있는 것이다. 또한 통기타 혁명은 이후 우리 대중음악계에 싱어송라이터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메이저 음반회사의 철저한 통제에서 벗어난 음반제작 시스템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는 측면에서도(이는 결국 음악인이 상품제작과정에서의 조립부품으로서의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으로서, 또 예술인으로서 자각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50년대 미국의 대중음악계의 흐름과 유사한 맥락에 있는 것이다.

-70년대 한국과 50년대 미국의 정치 사회적 배경

70년대 한국	50년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공화국과 유신정권의 통치 ■ 근대화 드라이브의 이데올로기화와 중산층 신화의 탄생 ■ 재벌 우대 정책 ■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의 본격적인 대두 ■ 청년문화를 낳은 전후세대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 공화당 정부의 보수주의 정책 ■ 2차대전으로 인한 부의 축적과 (백인중산층 중심의) '풍요한 사회' ■ 기업의 거대조직윤리의 영향으로 인간의 동질화, 순응화 현상 ■ 빈부격차 및 인종문제 등 사회적인 제 모순의 심화 ■ 비트세대의 저항의식

-70년대 한국의 통기타혁명과 50년대 미국의 로큰롤 레볼루션의 비교

로큰롤 레볼루션	통기타 혁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중심 ■ 흑인과 사회적 낙오자들 ■ 혁명의 무기는 r'n'r ■ 화두는 se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중심 ■ 선민의식을 가진 엘리트 대학생들 ■ 혁명의 무기는 folk ■ 화두는 자아성찰과 현실비판